

# 민주, 이재명 北송금 의혹에 '북풍조작 수사'·김건희 소환 역공

### “검찰, 정적 제거 수사 이어달리기 점입가경”

### “추가조작 증거 넘쳐...일반 피의자라면 구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을 '북풍조작 수사'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이어달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등판해 변호사비 대납을 때버리고 북풍 조작 수사 깃발을 들고나와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나섰다”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관들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바로 북풍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임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월, 4월, 11월경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비용이고, 11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보냈다. 그리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부 보고했다고 들었더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북사업권 대가였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돈 성격과 목적이 바뀌었다”며 “대북 송금 사업 수사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측 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몇 가지 사실관계들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꿰맞추어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범지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달라”며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하고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언과 관련해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뭇했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명청한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



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뭇개고 있다, 아내 학력·경력 조작 의혹 뭇개고 있다, 아내 논문 표절 의혹 뭇개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더 이상 자기 눈 찌르기 쇼 그만하라”고 몰아세웠다.

최이슬기자

# 민주, IMF 한국 성장 하향조정에 “무능·독선에 ‘경제포기 정권’”

### “저성장 日보다 낮아...25년 만에 뒤져”



더불어민주당이 IMF(국제통화기금)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하는데 대해 “무능, 독선 국정 운영에 경제가 침몰하고 국가 미래가 불투명해 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IMF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기하고 “더 충격적

인 건 저성장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일본보다 낮은 전망치란 점”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일본에 성장률 전망치에 뒤진 건 25년 만”이라며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니 우리만 바닥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라며 “끊임없이 각종 참사와 사고를 터뜨리며 무능과 독선의 국정 운

영을 계속하더니 경제는 침몰하고 국가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IMF가 내놓은 참담한 평가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실력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무능, 실정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9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무능, 무대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오로지 야당 때려잡기, 전 정권 탓하기만 하며 사실상 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쯤 되면 경제는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능을 인정하고 비상 경제 체제로 국정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골목대장처럼 호령만 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며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국민 통합 정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오유니기자

# 민주, ‘난방비 폭탄’에 “정부 쥐꼬리 처방”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한 채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킨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 더해 긴급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퍼 대상의 7.2조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편성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

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지원 포퓰리즘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제정신이나”며 “뭇가 안철, 국민 민생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과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례도 소개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첫번째 케이스로 과주시에서 전 가구 20만원씩 난방비 지원하기로 했다”며 “과주시 사례를 한 번 공유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의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주시장은 “중앙 에너지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주신다면 에너지 폭탄 맞고 고민 깊으신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큰 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